

e-KiET 산업경제정보

[]

○ 2000 (GRDP) 가

- , , , 가
가

○ 1 (GRDP)

- 1 ,

- , 가

- , 가 ,
1 GRDP

○

-

-

가



가

○ 1989 2008 4

가

2000

○

1994~1997

2.16%

2004~2008

4.27%

(< 1>).

-

,

1999

○ 16

1) < 1>

< 1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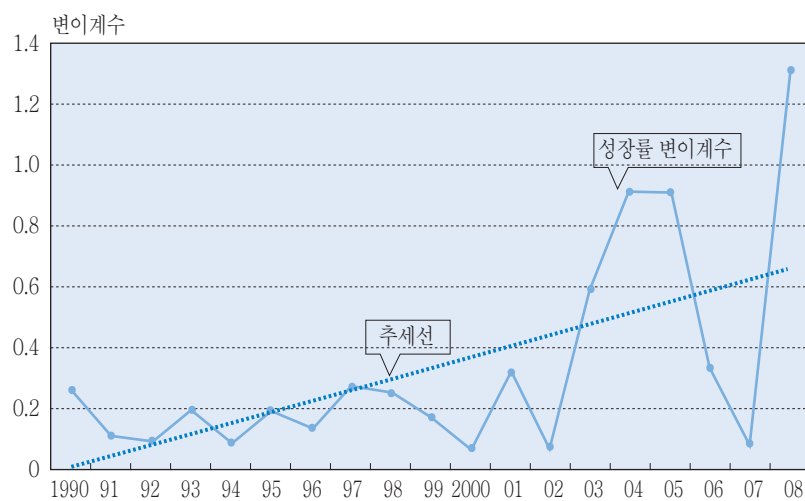
: %

		1989~1993	1994~1997	1999~2003	2004~2008
		8.16	7.06	6.82	4.13
		9.22	6.18	7.30	4.42
		9.56	7.56	7.69	6.47
		7.52	8.17	4.78	2.95
		6.83	8.34	6.43	3.15
		5.86	7.55	7.14	3.86
		5.91	7.02	5.62	2.20
	(%)	3.70	2.16	2.91	4.27

: ,
: 2005 가 . 1998

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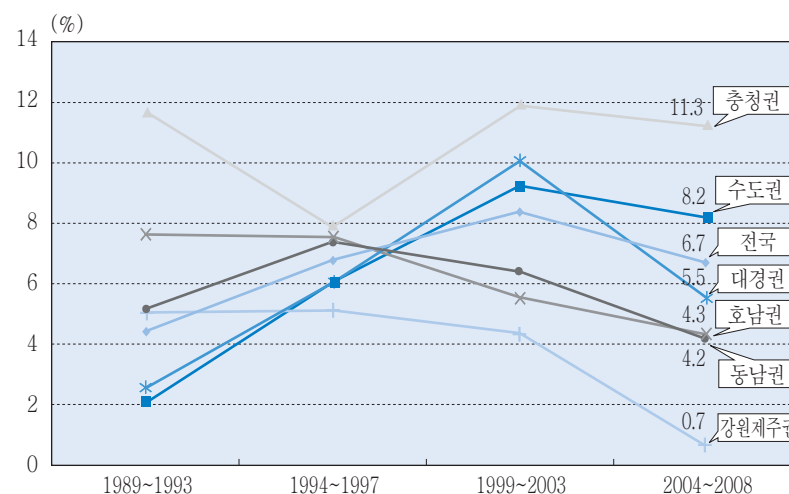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〉 16개 시·도의 GRDP 성장률 격차지수(변이계수) 추이



자료 : 통계청, 「지역내총생산」, 각 연도.

- 1997년 이전 시기와 1999년 이후 시기 간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지역 간 성장률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함(〈그림 2〉 참조).
- 제조업의 경우 1994~1997년 시기에 지역 간 성장률 격차는 강원·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의 경우 6.0~7.9% 범위 내에 있어 그다지 크지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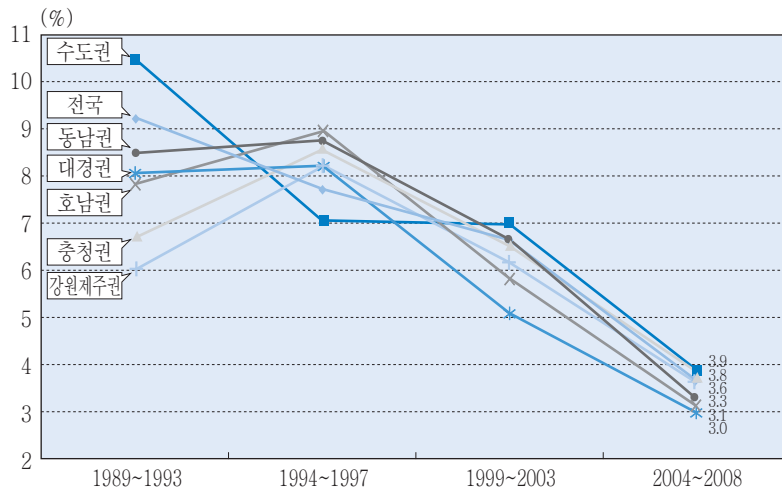
〈그림 2〉 광역경제권별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 추이



자료 : 통계청, 「지역내총생산」, 각 연도.

주 : 2005년 불변가격 기준이며, 1998년은 제외함.

〈그림 3〉 광역경제권별 서비스업 연평균 성장률 추이



자료 : 통계청, 「지역내총생산」, 각 연도.

- 그러나 2004~2008년 시기에는 지역 간 제조업의 성장률 격차가 크게 확대되어 강원·제주권을 제외하더라도 4.2~11.3% 범위로 나타났으며, 최저지역인 동남권과 최고지역인 충청권 간에 2배 이상의 성장률 격차를 보임.

○ 이에 비해 서비스업의 경우는 전 시기에 걸쳐 지역 간 성장률의 격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(〈그림 3〉 참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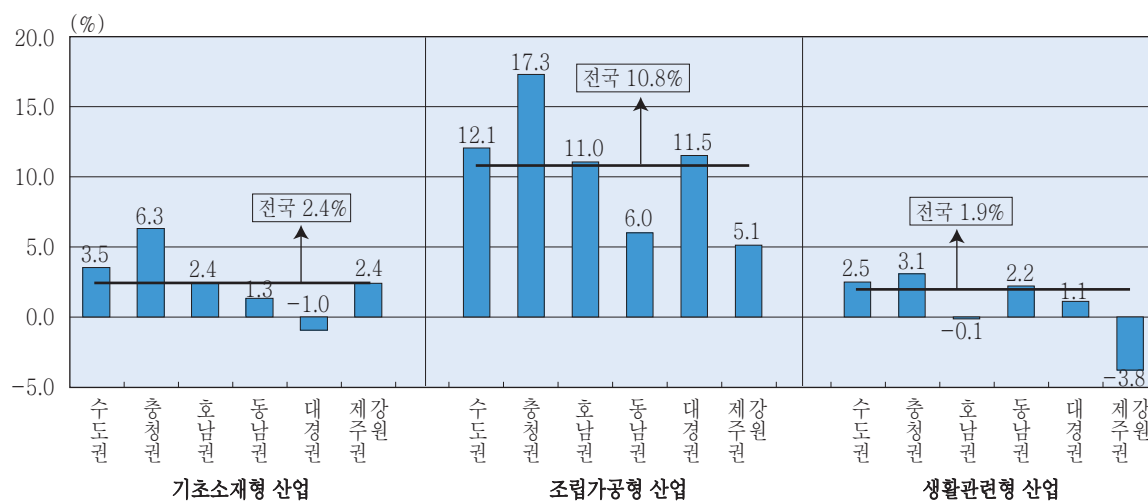
□ 제조업의 지역 간 성장률 격차 확대는 가공조립형 산업의 지역 간 성장격차에 기인

○ 2000년대 제조업의 지역 간 성장률 격차 확대는 주로 전자정보, 기계, 자동차, 조선 등 가공조립형 산업의 성장률 격차가 지역 간에 확대된 것에 의해 발생함.

○ 2004~2008년 시기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의 가공조립형 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2.1%, 17.3%에 달하는 반면, 동남권은 6.0%에 머물고 있음(〈그림 4〉 참조).

○ 가공조립형 산업의 지역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반도체, 디스

〈그림 4〉 제조업의 업종별 연평균 성장률(2004~2008)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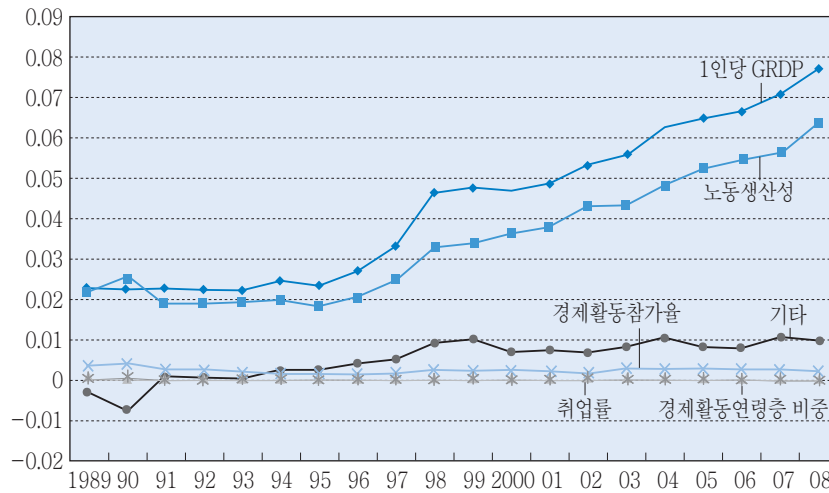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「지역내총생산」, 각 연도.

플레이, 휴대폰,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소수의 품목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함.

□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요인분해를 통한 성장격차 요인 분석

- 지역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(GRDP)은 지역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의해 결정됨.
 - 1인당 GRDP를 생산성과 고용을 반영하는 지표들로 요인 분해하여 이들의 변이계수를 구하면, 1인당 GRDP의 격차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(〈부록〉 참조).
- 분석 결과에 따르면, 1인당 GRDP의 변이계수는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광역경제권 간 발전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(〈그림 5〉 참조).
- 1인당 GRDP 변이계수를 요인분해하면, 1인당 GRDP의 지역 간 편차는 대부분 취업자당 GRDP, 즉 노동생산성의 지역 간 편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.

〈그림 5〉 지역 간 1인당 GRDP 변이계수의 분해 결과



자료 : 통계청, 「지역내총생산」, 각 연도.

주 : 기타는 공분산의 합. 6대 광역경제권(강원과 제주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통합) 기준.

– 1인당 GRDP 변이계수에서 노동생산성 변이계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82%에 달함.

○ 이에 비해 취업률, 경제활동참가율, 인구대비 경제활동연령층 비중에서의 지역 간 편차가 1인당 GRDP의 지역 간 편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.

– 이는 고용 또는 인구요인이 1인당 GRDP의 지역 간 격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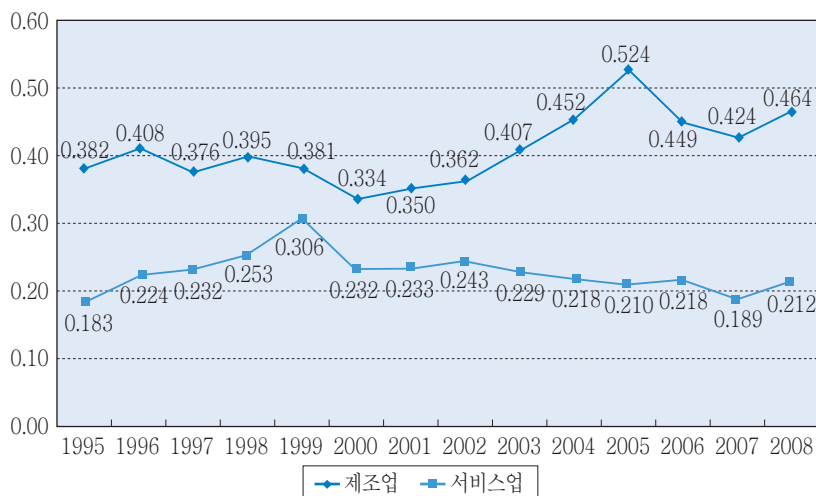
□ 노동생산성의 지역 간 격차는 가공조립형 제조업에서 크게 발생

○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, 지역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주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– 제조업의 경우 지역 간 노동생산성 격차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, 서비스업 부문의 지역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2000년부터 축소되는 추세임(〈그림 6〉 참조).

○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광역경제권별 노동생산성 수준을 시기별로 비교

〈그림 6〉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의 지역 간 격차지수(변이계수)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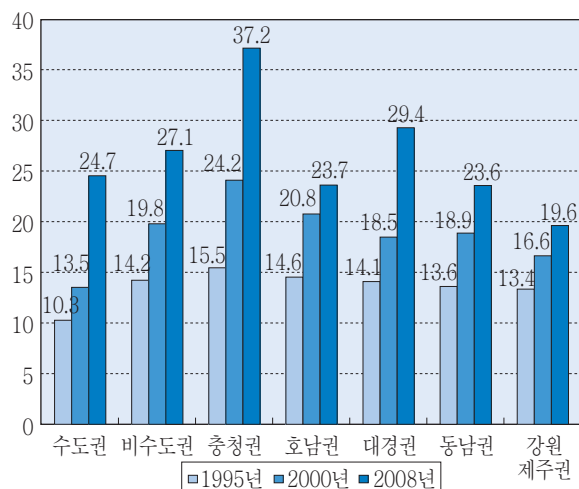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, 「지역내총생산」, 각 연도.

주 : 6대 광역경제권 구분 기준. 노동투입은 지역별·산업별 노동시간을 적용하여 산출. 가중변이계수의 가중치는 동 산업의 전국대비 비중을 사용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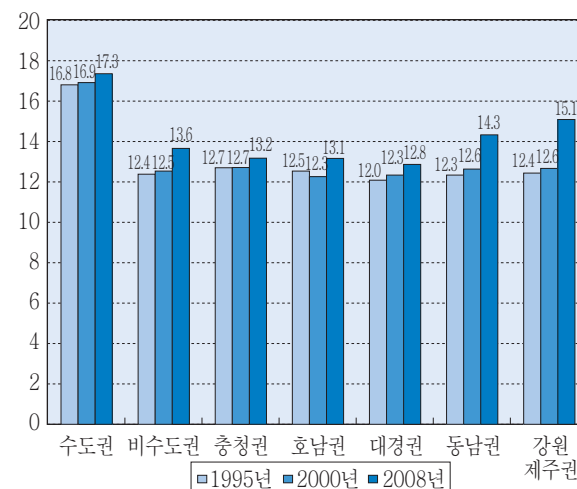
한 결과에 따르면, 〈그림 7〉에서 보듯이 제조업은 1995년 광역경제권 간 편차 대비 2008년 편차가 크게 확대되었음.

－ 반면, 서비스업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차이는 크지만, 비수도권 내에서는 수준의 차이가 거의 없고, 수도권과 비

〈그림 7〉 광역경제권별 노동생산성 비교 (제조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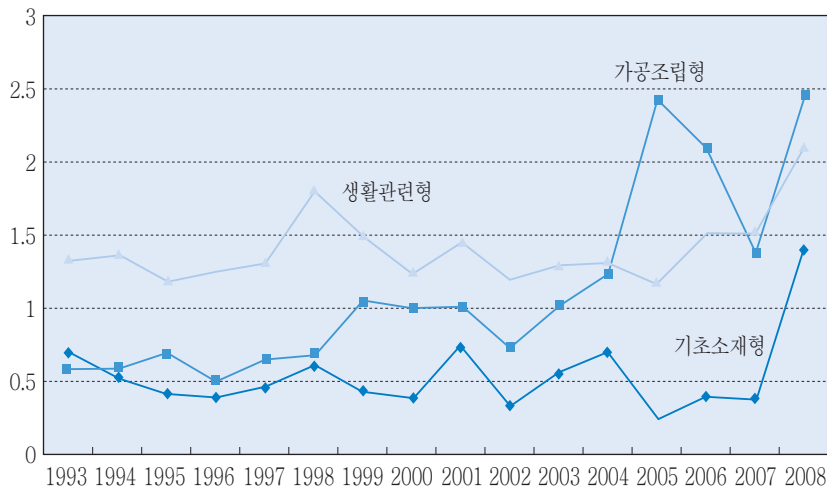
〈그림 8〉 광역경제권별 노동생산성 비교 (서비스업)



자료 : 통계청, 「지역내총생산」, 각 연도.

주 : 노동생산성=실질부가가치액(2005년기준가격, 천원)/노동투입시간.

〈그림 9〉 산업유형별 노동생산성 가중변이계수 추이



자료 : 통계청, 「지역내총생산」, 각 연도.

주 : 인구비중을 가중치로 한 6대 광역경제권 간의 변이계수임.

수도권 간의 격차 정도도 시기별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(〈그림 8〉 참조).

○ 제조업 부문의 지역 간 노동생산성 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제조업 중에서도 가공조립형 산업인 것으로 나타남.

– 최근 들어 3개 유형의 제조업 모두 지역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, 특히 가공조립형 산업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부상하였음.

□ 제조업의 지역 간 성장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필요

○ 1990년대 말 이후의 지역 간 발전격차 확대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지역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– 따라서 지역 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산업의 성장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, 특히 제조업의 성장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.

○ 제조업의 지역 간 성장률 격차를 야기하는 요인은,

- 가

,

.

- 가 , 가

.

- , 가 가

2)

3)

가

.

.

가

.

○

.

□

가

○

가

.

○

,

가

.

- ,

가

.

○

2) 가
3) 가

가

,

,

,

,

.

화라는 형평성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국가 전체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됨.

-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5+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,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·도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,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은 지역산업의 생산성 향상, 나아가 국가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 추진이 중요함.
- 이들 정책은 지역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, 혁신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술 지원, 인력양성·마케팅·지식서비스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함.

〈부록 : 1인당 지역내총생산 변이계수의 요인분해〉

- 지역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는 대표지표인 지역의 1인당 GRDP는 지역산업의 생산 수준과 인구요인에 의해 결정됨.
- 만약 지역별 인구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, 1인당 GRDP의 지역 간 격차는 지역산업의 성장률 격차에 의해 주로 유발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.
- 1인당 GRDP는 아래와 같이 요인분해가 가능함.⁴⁾

$$\frac{Y}{P} = \frac{Y}{E} \cdot \frac{E}{L} \cdot \frac{L}{W} \cdot \frac{W}{P} \quad \langle \text{식 1} \rangle$$

- 여기에서 Y, P, E, L, W는 각각 GRDP, 인구, 취업자, 경제활동인구, 경제활동연령인구를 의미함.
- 즉, 1인당 GRDP(Y/P)는 취업자의 노동생산성(Y/E), 취업률(E/L=1-실업률), 경제활동참가율(L/W),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연령층의 비중(W/P=1-부양률)에 의해 결정됨을 나타냄.
- 위 식에 대수값을 취하고 분산을 구하면 지역 간 1인당 GRDP의 변이계수

4) 김종일(2008), '지역경제력 격차에 관한 연구', 고영선 편, 「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」, KDI.

는 요인별 변이계수로 구분됨.

$$\begin{aligned}
 \text{var}\left(\ln \frac{Y}{P}\right) &= \text{var}\left(\ln \frac{Y}{E}\right) + \text{var}\left(\ln \frac{E}{L}\right) + \text{var}\left(\ln \frac{L}{W}\right) + \text{var}\left(\ln \frac{W}{P}\right) \\
 &+ 2\text{cov}\left(\ln \frac{Y}{E}, \ln \frac{E}{L}\right) + 2\text{cov}\left(\ln \frac{E}{L}, \ln \frac{L}{W}\right) + 2\text{cov}\left(\ln \frac{L}{W}, \ln \frac{W}{P}\right) \quad \langle \text{식 2} \rangle \\
 &+ 2\text{cov}\left(\ln \frac{Y}{E}, \ln \frac{L}{W}\right) + 2\text{cov}\left(\ln \frac{E}{L}, \ln \frac{W}{P}\right) + 2\text{cov}\left(\ln \frac{Y}{E}, \ln \frac{W}{P}\right)
 \end{aligned}$$

김 영 수

(연구위원·지역발전연구센터) · (부연구위원·동향분석실)
yskim@kiet.re.kr shlee7625@kiet.re.kr
(02-3299-3049) (02-3299-3086)

이 상 호

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.kiet.re.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.
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